

<2015.10.02.~2015.10.05.>

奎北日報

2015년 10월 02일 금요일 012면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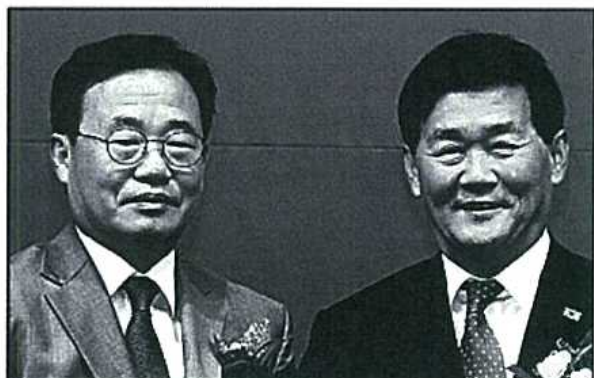
고창군,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 수상

고창군이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 생태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군은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관광자원화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자원 홍보,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문화관광 산업 추진의 성과를 인정받아 1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군은 그동안 남한의 DMZ라 불리는 생태계의 보고 운곡습지 및 고인돌을 생태관광자원화하고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 운곡습지 생태체험 지구 조성을 통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또한 2013년 5월에는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14년 7월에는 환경부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으로 아산 용계마을이 선정, 같은 해 12월에는 도내 최초로 고인돌·운곡습지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올 3월에는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역으로 운곡습지(용계마을) 지정되는 성과를 이루는 등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고창=김성규 기자



박우정 고창군수는 1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 생태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 생태관광 선도 도시 '우뚛'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

고창군(박우정)은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 생태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명실공히 생태관광을 선도하는 도시로 우뚛 섰다.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은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관광공사,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해 대한민국 문화 관광 산업의 선진화와 우수 문화 관광 산업 선발을 위해 제정, 시상하고 있다.

고창군은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관광자원화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자원 홍보,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문화관광 산업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1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수상하게 됐다.

군은 그동안 남한의 DMZ라 불리는 생태계의 보고 운곡습지 및 고인들을 생태관광자원화하고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 운곡습지 생태체험 지구 조성을 통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또한 2013년 5월에는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14년 7월에는 환경부 생태관광 성공모델 지역으로 아산 용계마을이 선정됐고 12월에는 도내 최초로 고인돌·운곡습지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아울러 올 3월에는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역으로 운곡습지(용계마을)가 지정되는 등 적극적인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고창=남궁경중 기자

고창군, 명품생태도시 '입증'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 생태관광부문 '대상' 수상

고창군이 1일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 생태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이 지역이 명품생태도시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상은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관광공사,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해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제정됐다.

군에 따르면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관광

자원화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생태자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소득을 증대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문화관광 산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이날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

박우정 군수는 "앞으로 청정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주민 소득증대에 앞장 서겠다"며 "치밀하고 빈틈없는 정책을 통해 우리지역이 청청하고 아름다운 명품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l@

고창군 대한민국 명품생태도시 우뚝

‘문화관광 산업대상’ 생태관광부문 대상

고창군이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 생태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군은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관광자원화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지원 홍보,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문화관광 산업 추진의 성과를 인정받아 1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그동안 남한의 DMZ라 불리는 생태계의 보고 운곡습지 및 고인들을 생태관광자원화하고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 운곡습지 생태체험지구 조성을 통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또한 2013년 5월에는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14년 7월에는 환경부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으로 아산 용계마을이 선정, 같은 해 12월에는 도내 최초로 고인들·운곡습지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아울러 올 3월에는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역으로 운곡습지(용계마을) 지정되는 성과를 이루



남한의 DMZ라 불리는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 운곡습지.

는 등 적극적인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박우정 군수는 “앞으로도 고창군의 청정한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청청하고 아름다운 명품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은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관광공사,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해 대한민국 문화 관광 산업의 선진화와 우수 문화 관광 산업 선발을 위해 제정, 시상했다.

/고창=박용관 기자(sc0747@)

고창군,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 수상

자연생태관광부문 인정받아

고창군(박우정)이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 생태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군은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관광자원화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자원 홍보,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문화관광 산업 추진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그동안 남한의 DMZ라 불리우는 생태계의 보고 운곡습지 및 고인돌을 생태관광자원화하고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 운곡습지 생태체험지구 조성을 통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또한 2013년 5월에는 국내 최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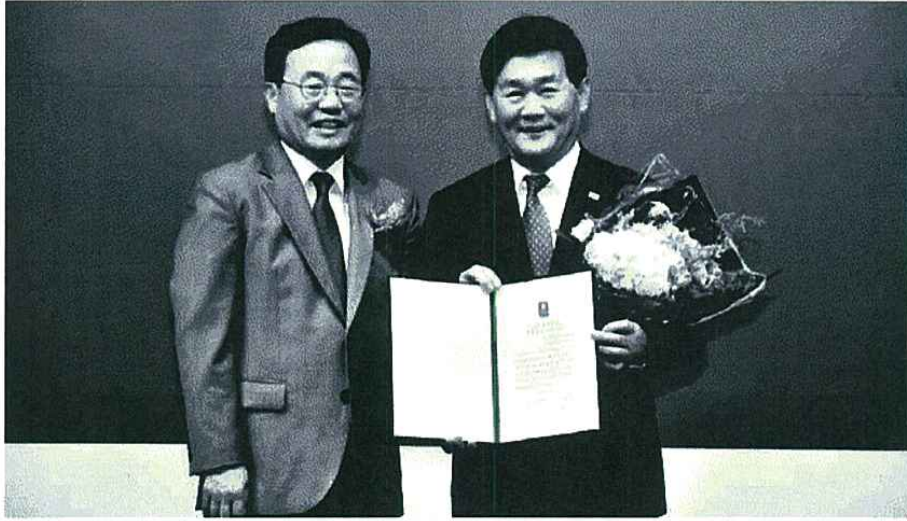


고창군(박우정)이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 생태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14년 7월에는 환경부 생태관광 성공모델 지역으로 아산 용계마을이 선정, 같

은 해 12월에는 도내 최초로 고인돌·운곡습지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고창군이 1일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 생태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한 가운데 박우정 군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창군 대한민국 생태관광부문 '왕좌'

자원활용 사업추진 성과 결실... 문화관광 대상 영예

고창군이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 생태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군은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관광자원화 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자원 홍보,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문화관광 산업 추진의 성과를 인정받아 1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남한의 DMZ라 불리는 생태계의 보고 운곡습지 및 고인들을 생태관광자원화하고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 운곡습지 생태체험 지구 조성을 통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또한 2013년 5월에는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14년 7월

에는 환경부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으로 아산 용계마을이 선정, 같은 해 12월에는 도내 최초로 고인들·운곡습지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아울러 올 3월에는 전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역으로 운곡습지(용계마을) 지정되는 성과를 이루는 등 적극적인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박우정 군수는 "앞으로도 고창군의 청정한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청정하고 아름다운 명품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은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관광공사,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했다.

신익희기자/syhee5311@hanmail.net

고창군 문화 생태관광 대상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적극적인 문화관광산업 추진 성과 인정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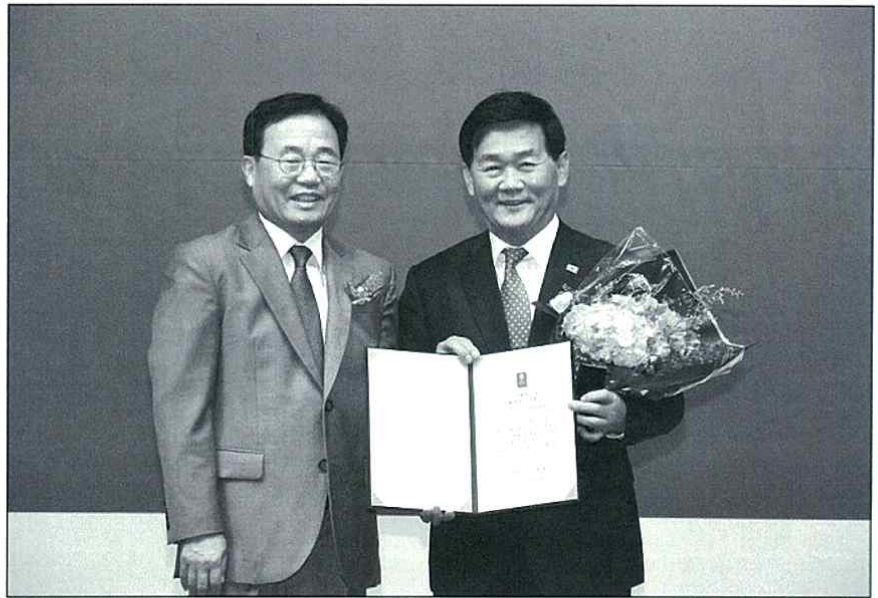
고창군이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 대상' 생태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군은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관광자원화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자원 홍보,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문화관광 산업 추진의 성과를 인정받아 1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남한의 DMZ라 불리는 생태계의 보고 운곡습지 및 고인들을 생태관광자원화하고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 운곡습지 생태체험 지구 조성을 통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또한 2013년 5월에는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14년 7월에는 환경부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으로 아산 용계마을이 선정, 같은 해 12월에는 도내 최초로 고인돌·운곡습지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아울러 올 3월에는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역으로 운곡습지(용계마을) 지정되는 성과를 이루는 등 적극



고창군이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 생태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적인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박우정 군수는 "앞으로도 고창군의 청정한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명품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은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관광공사,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해 대한민국 문화 관광 산업의 선진화와 우수 문화 관광 산업 선발을 위해 제정, 시상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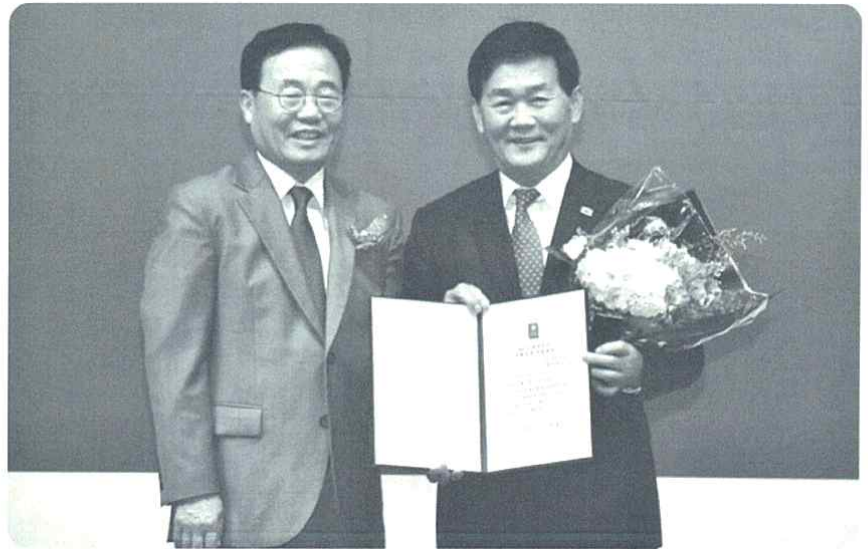
고창군, 명품생태도시 '우뚛'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
생태관광부문 대상 수상 쾌거
운곡습지 개선 사업 등 '인정'

고창군이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 생태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군은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관광자원화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자원 홍보,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문화관광 산업 추진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그동안 남한의 DMZ라 불리는 생태계의 보고 운곡습지 및 고인들을 생태관광자원화하고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 운곡습지 개선 지역 복원, 운곡습지 생태체험 지구 조성을 통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또한 지난 2013년 5월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14년 7월 환경부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으로 아산 용계마을이 선정, 같은 해 12월에는 도내 최초로 고인돌·운곡습지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박우정 고창군수가 지난 1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수여받은 생태관광부문 대상 상패를 들어보이고 있다.

아울러 올 3월에는 전북도 1시군 1 생태관광지역으로 운곡습지(용계마을) 지정되는 성과를 이루는 등 적극적인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박우정 군수는 "앞으로도 고창군의 청정한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청정하고 아름다운 명품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은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관광공사,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해 대한민국 문화 관광 산업의 선진화와 우수 문화 관광 산업 선발을 위해 제정, 시상했다. /정관진 기자

문화관광사업 추진 '인정받았네'

고창군, 대한민국 문화관광 사업대상 생태관광부문 대상 수상



고창군이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관광자원화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자원 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 생태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고창군이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 생태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군은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관광자원화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자원 홍보,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문화관광 사업 추진의 성과를 인정받아 1일 상을 받았다.

고창군은 그동안 남한의 DMZ라 불리는 생태계의 보고 운곡습지 및 고인들을 생태관광자원화하고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 운곡습지 생태체험 지구 조성을 통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또한 2013년 5월에는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14년 7월에는 환경부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으로 아산 용계마을이 선정, 같은 해 12월에는 도내 최초로 고인돌·운곡습지가 생태관광지역

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아울러 올 3월에는 전라북도 1시군 1 생태관광지역으로 운곡습지(용계마을) 지정되는 성과를 이루는 등 적극적인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박우정 군수는 "앞으로도 고창군의 청정한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청정하고 아름다운 명품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은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관광공사,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해 대한민국 문화 관광 산업의 선진화와 우수 문화 관광 산업 선발을 위해 제정, 시상했다.

/고창=조종욱 기자

고창, 명품 생태도시 자리매김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 '생태관광부문 대상'... 사업추진 성과 인정

고창군이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 생태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군은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관광자원화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자원 홍보,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문화관광 산업 추진의 성과를 인정받아 1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그동안 남한의 DMZ라 불리는 생태계의 보고 운곡습지 및 고인들을 생태관광자원화하고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 운곡습지 개선 지역 복원, 운곡습지 생태체험 지구 조성을 통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또한 2013년 5월에는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14년 7월에는 환경부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으로 아산 용계마을이 선정, 같은 해 12월에는 도내 최초로 고인돌·운곡습지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기



고창군이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 생태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도 했다.

아울러 올 3월에는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역으로 운곡습지(용계마을) 지정되는 성과를 이루는 등 적극적인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박우정 군수는 "앞으로도 고창군의

청정한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청청하고 아름다운 명품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종성 기자
kjs56730@daum.net

고창, 명품 생태도시 자리매김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 '생태관광부문 대상'... 사업추진 성과 인정

고창군이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 생태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군은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관광자원화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자원 홍보,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문화관광 산업 추진의 성과를 인정받아 1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그동안 남한의 DMZ라 불리는 생태계의 보고 운곡습지 및 고인들을 생태관광자원화하고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 운곡습지 개선 지역 복원, 운곡습지 생태체험 지구 조성을 통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또한 2013년 5월에는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14년 7월에는 환경부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으로 아산 용계마을이 선정, 같은 해 12월에는 도내 최초로 고인돌·운곡습지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기



고창군이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 생태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도 했다.

아울러 올 3월에는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역으로 운곡습지(용계마을) 지정되는 성과를 이루는 등 적극적인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박우정 군수는 "앞으로도 고창군의

청정한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청청하고 아름다운 명품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종성 기자
kjs56730@daum.net

[고창소식] 문화관광산업대상 생태관광 대상 수상 등



【고창=뉴스시스】 김종효 기자 = ◇문화관광산업대상 생태관광 대상 수상

전북 고창군이 '대한민국 문화관광산업대상' 생태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군은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관광자원화해 추진했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태자원 홍보,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업성과를 인정받아 1일 서울 웨스튼조선호텔에서 열린 시상에서 상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고창군은 그동안 남한의 DMZ라 불리는 생태계의 보고 운곡습지와 고인돌을 생태관광자원화 하고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 운곡습지 생태체험 지구 조성을 통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13년 5월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됐고 지난해 7월에는 환경부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으로 아산 용계마을이 선정됐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도내 최초로 고인돌·운곡습지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올해 3월에도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역'으로 운곡습지(용계마을)가 지정되는 등 군이 펼쳤던 적극적인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이 거듭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앞으로도 고창군의 청정한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청정하고 아름다운 명품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문화관광산업대상'은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관광공사,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해 대한민국 문화관광산업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고창군,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 생태부문 수상



전북 고창군(박우정)이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 생태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박우정 고창군수(오른쪽)와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주간 상무© News1

전북 고창군(박우정)이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 생태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군은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관광자원화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자원 홍보,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산업 추진의 성과를 인정받아 1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고창군은 남한의 DMZ라 불리는 생태계의 보고 운곡습지와 고인돌을 생태관광자원화하고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 운곡습지 생태체험 지구 조성을 통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2013년 5월에는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14년 7월에는 환경부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으로 아산 용계마을이 선정, 같은 해 12월에는 도내 최초로 고인돌·운곡습지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올 3월에는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역으로 운곡습지(용계마을) 지정되는 성과를 이루는 등 적극적인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박우정 군수는 “앞으로도 고창군의 청정한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청청하고 아름다운 명품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은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관광공사,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해 대한민국 문화 관광 산업의 선진화와 우수

문화 관광 산업 선발을 위해 제정, 시상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전북 고창군 운곡습지 © News1 박제철 기자

jcpark@

고창군,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 수상

"생태관광부문 대상, 명품생태도시 우뚝"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고창군(박우정)이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 생태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군은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관광자원화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자원 홍보,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문화관광 산업 추진의 성과를 인정받아 1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그동안 남한의 DMZ라 불리는 생태계의 보고 운곡습지 및 고인돌을 생태관광자원화하고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 운곡습지 생태체험 지구 조성 등을 통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또한 2013년 5월에는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14년 7월에는 환경부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으로 아산 용계마을이 선정, 같은 해 12월에는 도내 최초로 고인돌·운곡습지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아울러 올 3월에는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역으로 운곡습지(용계마을) 지정되는 성과를 이루는 등 적극적인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박우정 군수는 "앞으로도 고창군의 청정한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청정하고 아름다운 명품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은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관광공사,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해 대한민국 문화 관광 산업의 선진화와 우수 문화 관광 산업 선발을 위해 제정, 시상했다.

김재길 기자

고창군,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 수상

아주경제 최규은 기자 =전북 고창군이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 생태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군은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관광자원화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자원 홍보,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문화관광 산업 추진의 성과를 인정받아 1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고창군이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고창군]

고창군은 그동안 남한의 DMZ라 불리는 생태계의 보고 운곡습지 및 고인돌을 생태관광자원화하고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 운곡습지 생태체험 지구 조성을 통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또한 2013년 5월에는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14년 7월에는 환경부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으로 아산 용계마을이 선정, 같은 해 12월에는 도내 최초로 고인돌·운곡습지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아울러 올 3월에는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역으로 운곡습지(용계마을) 지정되는 성과를 이루는 등 적극적인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박우정 군수는 “앞으로도 고창군의 청정한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청청하고 아름다운 명품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 수상



▲ 고창군 박우정 군수가 문화관광 산업대상 수상 후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주장과 환하게 웃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고창군청 © 이용찬 기자

전북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1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생태관광부문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을 수상했다.

고창군의 이번 산업대상 수상은 그동안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이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비전 제시와 생태자원의 홍보,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적극적인 문화관광 산업 추진 성과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고창군은 그동안 남한의 DMZ라 불리는 생태계의 보고 운곡습지 및 고인돌 등을 생태관광자원화 하고 기존 운곡습지 개선지역의 추가 복원과 운곡습지 생태체험 지구 조성을 통한 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런 노력들에 힘입어 지난 2013년 5월에는 국내 최초로 고창군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어 2014년 7월에는 환경부의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으로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이 추가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도내 최초로 고인돌·운곡습지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추가 지정되기도 했다.

아울러 올 3월에는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역으로 운곡습지(용계마을)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적극적인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고창군의 청정한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이 청청하고 아름다운 명품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은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관광공사,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해 대한민국 문화 관광 산업의 선진화와 우수 문화 관광 산업 선발을 위해 제정, 시상한다.

박우정 고창군수 '한국전문인 대상' 수상 지속가능 자연생태도시 육성 빛나

한국전문기자협회 수여
청정 생활환경 조성 호평

박우정 고창군수가 지속가능한 자연생태 도시 육성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사)한국전문기자협회(회장 김창석)가 수여하는 기초단체 경영부문 '한국전문인 대상'을 수상했다.

기자협회는 박우정 군수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자치경영 성과와 업적을 인정해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민선6기를 이끌고 있는 박 군수는 그동안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건설'을 슬로건으로 적극적인 현장행정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물권보전지역을 육성하는 한편 쾌적하고 청정한 생활환경조성 및 농촌생활환경정비 등 농업환경 개선과 앞서가는 귀농귀촌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목을 받아왔다.

이날 박우정 군수는 "고창군 민선 6기 군정방향은 모든 군민이 가장 행복한 삶을



박우정 고창군수가 한국전문기자협회가 수여하는 기초단체 경영부문 '한국전문인 대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며 "앞으로도 전 공직자의 힘을 모아 어려운 이웃과 소통하며 화합과 협력으로 활기찬 고창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전문인 대상'은 한국전문기자

협회가 매년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인을 대상으로 혁신성, 참신성, 공약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시상하는 상으로 각계에서 노리고 있는 권위있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고창=신동일기자·sdl@

고창군,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 수상

생태관광부문 대상

고창군이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 생태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관광 산업대상'에서 생태관광부문 대상을 받았다.

고창군은 그동안 남한의 DMZ라 불리는 생태계의 보고 운곡습지 및 고인돌을 생태관광 자원화하고,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 운

곡습지 생태체험 지구 조성을 통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2013년 5월 국내 최초로 고창지역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7월에는 환경부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으로 아산 용계마을이 선정되기도 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군의 청정한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고창지역 전체가 아름다운 명품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고훈석기자 ghs@